

“순천시 산사음식 맛보세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송광사 자리잡아 불교 역사·음식 발달
더덕·도라지·두부·연근·우엉 등 주제로 ‘순천산사’ 2종 발굴



순천시는 음식으로 건강을 다스리고자 전통적으로 전래되어 오거나 기존 사찰에서 만들던 음식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건강한 음식’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순천산사’ 음식을 발굴하였다.
순천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암사와 승보종찰인 송광사가 자리잡고 있어 불교의 유구

천산사 전문점에서 맛볼 수 있다. 순천산사 전문점은 지난 4월에 송광사 입구에 자리한 ‘소소산식’과 선암사 입구에 ‘순천산식’, ‘향토예찬’ 등 3곳이 오픈하여 건강한 음식을 맛보고자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판매되고 있다.
순천시 한길성 관광 과장은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의 말을 되새겨보면 아무거나 먹거나, 욕심내 많이 먹지도 않을 것이다”면서 “적은 음식으로도 몸과 정신을 풍요롭게 다스리는 스님처럼,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순천에서 산사음식을 드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 사곡리 죽림리 일원
하수관리 정비사업 추진
오는 2021년 7월 준공 앞뉘

광양시가 광양읍 사곡리와 죽림리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사업비 110억여 원을 들여 6개 마을 297가구에 배수 설비와 하수관로 16.8km를 매설해 하수를 광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오는 2021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름철 해충과 악취, 각종 질병에 노출 우려가 있는 주민들의 보건환경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마을주민은 “집집마다 나오는 하수의 고약한 냄새로 여름철이면 많이 불편했는데 시에서 하수관로를 매설해 준다니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김세화 하수도과장은 “건설한 공사 추진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로 인해 불편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시-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순천시가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이하 경문협)과 협약을 맺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도시 간 교류사업에 나선다.
순천시와 경문협은 18일, 순천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새롭고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문협이남·북도시 간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남북한 30개 도시를 정해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이 참석하여 남북한 공동번영과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시민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순천시와 북측 1개 도시와의 협력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정된 북측 도시와 인도·농업·산림 및 보건 의료 협력 사업 등 순천시의 자원을 이용한 5~10대 중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경문협은 북측과 신뢰 있는 교류창구를 확보해 사업 성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경문협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 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순천시가 희망하고 있는 북한 순천시와의 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확찐자 해제시켜드려요”

여수시 ‘비만탈출 프로그램’ 운영
참여율 70% ↑ 이용료 월 4만원 지원



민간시설에서 운동하고 있는 상반기 프로그램 참여자 운동 장면

여수시가 시민들의 비만 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비만탈출 프로그램’에 함께할 참여자 60명을 모집한다.
‘비만탈출 프로그램’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수시민으로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경우 참여할 수 있다.
* BMI = 체중(kg) ÷ 신장(m²)
비만은 세계보건기구(WHO)

에서 질병으로 분류하며, 당뇨, 고혈압, 암, 고지혈증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특히 체질량지수 30kg/㎡ 이상인 사람의 경우,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원하는 민간운동시설과 연계해 규칙적인 운동실천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체성분 측정, 혈압, 당뇨, HDL-콜레스테롤 등 사전?후 건강검사와 건강관리 교육을 위한 영양교육을 받게 된다.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 체력단련실을 방문해 체질량지수(BMI) 등을 측정 후 신청하면 된다.
매월 운동 참여율이 70% 이상인 경우 4만원의 시설이용료가 지원되며, 참여자 중 체지방율 3% 이상 감량에 성공하면 1개월 사후관리비(4만 원)가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혼자서 체중 관리가 어려운 시민들이 비만 관리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문의는 건강증진과(☎659-4273)로 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고흥군, 이야기가 흐르는 ‘설화 특화마을’ 조성 총력

호동리 호동마을 · 운대리 운곡마을 역사·문화자산 활용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과 연계하여 옛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테마가 있는 ‘설화 특화마을’을 조성하여 고흥 관광의 새로운 명소를 알리기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군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6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이야기 천국 창조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9억원을 지원받아 기존 역사·문화관광자원에 설화를 융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이 중 설화 특화마을 조성은 창조지역사업의 일부로 3개년 연차 사업으로 진행될 사업으로 고흥읍 호동리 호동마을 일원과 두원면 운대리 운곡마을 일원에 설화마을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마을로 조성되고 있다.
호동마을은 조선시대 문인학자이자 야담문학의 시인인 ‘어우야담’을 집필한 류몽인(柳夢寅)이 2년간 거주하면서 감로정(甘露亭)을 지으며 생활했던 곳으로 핀땃바위, 징, 도깨비 이야기 등의 옛

이야기가 전해진 곳이다. 운곡마을은 주변에 청자 가마터 5기와 분청사기 가마터 27기가 분포되어 한국 도자기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곳으로, 특히 분청문화박물관 주변에 위치하여 고흥의 역사·문화, 문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고흥의 문화관광 중점지역으로 사구시, 수도암 등이 전해진 곳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진 두마을의 옛 이야기와 유구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마을 명소 소개 △마을 명소 안내판 설치 등이 진행 중에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옛부터 전해져오는 이야기, 설화를 기반으로 한 마을 조성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군 전체를 상품화한 것으로 ‘설화의 메카, 고흥’이란 새로운 지역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동역

코로나19 방역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학남2지구 상가 상인회-

